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의 본질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의 본질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 : 1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요한계시록 22 : 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

두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극한 행복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궁극적 조건은 무엇입니까?

1. 생명의 충만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의 궁극적 원인은 생명의 충만에 있습니다. 죽음이 없는, 죽음이 지배할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충만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쉽게 생각하기를 행복이란 소유에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는 물질적 충만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행복의 본질은 소유의 넉넉함에, 부귀와 명성을 얻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행복은 생명의 충만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새하늘과 새땅에서의 삶의 생명 충만의 모습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더라.

생명수가 강같이 흐른다는 말은 생명이 강같이 흘러 넘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인간세계에 사망이 없다면 무슨 일이 있을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이 없다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죽음이 없으니 무엇을 먹을가 무엇을 입을가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안먹어도 죽질 안고, 먹어도 죽질 않습니다. 죽음이 없으니 추위에도 더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직업을 잃어도 가족의 의식주에 대한 모든 염려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니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의료 보험이 필요없습니다. 길가다가 자동차가 크레쉬되어도 죽을 염려가 없으니, 생명보험이 필요없어집니다. 생노병사, 희로애락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환경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유사 이래 현자들은 이 죽음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죽음이 정복되면 인류의 모든 모든문제가 다 정복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죽음이 없어져 환경으로 부터 완전히 해방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총만으로 말미암아 환경의속박으로 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족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음이 없어져 환경으로 부터 완전히 해방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찾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 :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사람에게서 사망이 없어지면,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어집니다.

2. 사람들은 어떻게 생명을 얻으려 하나?

사람은 왜 소유를 더 많이 얻으려 합니까? 왜 부귀와 명성을더 얻으려 합니까?

그것은 자기를 견고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자기의 위치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소유를 통하여, 부귀와 명성을 통하여 자기를 견고히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존재의 유한성의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이런 시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존재의 유한성의 불안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죽음 때문입니다. 언제인가 죽음이 밀어 닥치면, 자기의 모든 행복을 다 쓸어 버리고 무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죽음에 대비하여 자신을 공고히 세우고 싶어,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쌓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은 우리의 생활의 근저에 있으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어 걸려 있다고 하였으며, 이것이 불안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은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육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것은 의식주의 불안 질병에서의 불안을 만들어 냅니다.

두번째 불안은 좀더 깊은 불안으로, 사후에 자기의 존재가 영원히 끊어져 허무와 망각에 묻혀지지 않을 가 하는 불안입니다. 이런 허무와 망각의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인간은 끝없는 종자 번식을 하는 것입니다.

3. 영생-생명의 능력

요한복음 11 : 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 :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생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소유하는 영생을 말하고,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시 가질 육체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살 때 영생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재림시 부활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이 영생의 능력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은 영원히 살아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임하면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도 싹이 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생명이 들어가니 죽은 뼈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죽은지 사일이 지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시체도 살아 일어 납니다.

우리 이 사실들을 성경에서 찾아 보십시오.

죽은 나무가지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은,

민수기 17 : 8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죽은지 사일이 지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시체도 살아 일어 난 것에 대하여는,

요한복음 11 : 43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요한복음 11 : 44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런 생명은 전능자로 부터 공급을 받는 것이지 인간이 자가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명이 위로 부터 주어지면, 연약한 육체에 생명이 넘쳐 강건하게 됩니다. 질병에 대한 염려는 바람과 같이 사라집니다. 사망이 극복되어,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무궁한 능력으로 인해, 환경의 억압으로 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가루가 되어 날라 갑니다.

예수님은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 : 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 :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러한 환경으로 부터의 해방, 자신으로부터의 해방은, 사망의 속박에서 오는 것이 아닌, 생명의 충만이 주는 자유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상태가 되면 그의 마음 속에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같이 흐르는 안식의 상태가 계속됩니다.

이것이 위로 부터 공급되는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라를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2 : 32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그 나라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손에 들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시 누려야 합니다.

4. 어떻게 영생을 얻나?

이런 영원한 생명은 변전하는 물질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계는 끊임없이 생성소멸하고 있으며, 이 피조 세계는 끊임없이 생노병사를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 영원한 안식의 세계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질세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고 신적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신적 세계는 어떤 신적 세계입니까?

신적 세계에 속한 것이라할 때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고 이해하는 그런 신적인 것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신적 세계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낸 신은 인간의 소멸됨과 함께 소멸됩니다. 물질 세계와 함께 소멸되고 맙니다. 이런 신은 인간에 의해 피조된 신입니다. 바로 이런 신이 범신론이며, 만물 안에는 신적 성품이 있어 신으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안에도 신적 성품이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고 계양하면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모조된 신입니다. 이것은 참신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신은 피조물이 만들어 낸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조물을 초월하여 있는 신입니다. 이런 신은 만물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내재성) 만물을 초월하여 만물 위에 계십니다(초월성).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무궁한 능력으로 만물을 하나로 통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에베소서 4 : 6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one God and Father of all, who is over all and through all and in all.

이런 신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셔서 자존하시며, 그 영원무궁하고 무한하신 능력으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만이 피조 세계가 소멸된다 할지라도, 스스로 계셔서 자존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분만이 그 자신의 영원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의미하는 신은 이런 신이며, 우리가 의미하는 생명은 이런 신이 주신 생명입니다. 이런 신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 뿐이 없으며, 이런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시간에 제약을 받고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인간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중보자임을 믿을 때, 신인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 영원한 생명-영생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우리 안에 소유함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지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 : 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일서 5 :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는 신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기안에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런 사람은 영생이 자기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영원한 행복의 근원을 근원을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비할 데 없는 행복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